

CBS공방위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2021.11.15.

공방위 간사 | 장규석

공방위원 | 서병석·이승규·김지수·최인수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 입후보자 및 1차 투표 공고

CBS공정방송협의회는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후보자를 공고하며, 전 조합원 1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작국장 추천 1차 투표 후보 명단(가나다 순)		
기호	이름	현 직책
1	김세광	제작2부 프로듀서
2	이재상	편성부장
3	조충남	제작1부 프로듀서

보도국장 추천 1차 투표 후보 명단(가나다 순)		
기호	이름	현 직책
1	이용문	경제부 선임기자
2	이재기	산업부 선임기자

- 투표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07:00~19:00

- 투표 방법 : 전자투표(휴대전화 문자투표)

- 개표 공고 : 2021년 11월 19일(금) 10:00

보도국장 후보자 1

이용문

現 보도국 경제부 선임기자

-산업부장 / 정치부장

-산업부·경제부(전기전자반도체, IT통신, 기재부, 국토부 등)

-정치부(국회반장, 여당반장,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사회부(법조팀, 시경캡, 교육부)



‘원팀 CBS’ 정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보도국의 첫 계단에 발을 올리겠습니다.

노보274호에 실린 ‘새 보도국장에게 바란다’는 글을 읽고 또 읽고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미래비전 상실과 소통의 부재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적에 200% 공감합니다. 공정보도의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는 사무치게 반성했습니다.

보도국장 후보자 추천선거에 나서면서 많은 보도국 선후배들, 다른 국 뿐 아니라 지역국 선후배들께서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가슴에 새겼던 말씀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상실한 미래비전과 사라진 소통, 여러분들과 함께 찾겠습니다. 해결을 위한 계단에 첫 발 디디겠습니다.

*미래준비 -여의도뒷담-법정B컷 등 유튜브 영상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가윗일 아닌 정식 업무로 인정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기자와 전문기자로의 발돋움할 기틀 만들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도울 인턴PD제 도입하겠습니다. -편성국과 디콘국 등 관련 국실간 협력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CBS는 원팀입니다.	*아침뉴스&노컷 -편집회의가 결정하는 아침 리포트는 단독 기사 포함 최대 2개로 제한하겠습니다. -대신 아침뉴스팀 인원 늘려 흐름 있는 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작에 투입하던 시간과 노력을 양질의 노컷기사 생산에 돌리겠습니다. -뉴스레터 활용해 생산된 기사가 포털이나 SNS 등에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대응 역량 확대 -주요 사안에 TF팀을 즉시가동하고 지역국과의 협업도 하겠습니다. -TF가동중 취재실비 보전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부별팀별 이슈대응 담당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국 발제는 유사사례 통합해 전국기사화 하겠습니다.	*소통강화와 복지전략 -주니어보드 만들어 주기적 대화 하겠습니다. -젠더 옴부즈만 위촉해 젠더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인사 소원수리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 격무부서 순환근무 이루겠습니다. -대휴 2주내 소진원칙시행하고 리커버리휴가-유연근무 마련하겠습니다.

보도국장 후보자 2

이재기

現 보도국 산업부 선임기자

-경제부장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부장

-한국기자협회 이달의기자상 심사위원

-정치부(국회팀장,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반장, 대통령직인수위 취재팀장, 청와대)

-사회부(서울지검), 산업부(삼성·LG·대한항공)



CBS(노컷)뉴스는 홈페이지 순위에서 15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페이지뷰는 월 3000만 뷰에서 1000만~2000만 뷰 수준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아침 뉴스 청취율은 여전히 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이라 했던 그 위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3.15부정선거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야만성과 폭압성을 고발했던 우리의 빛나는 전통은 그때의 영광으로만 남았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 뉴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 독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뉴스경쟁력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이트와 리포트 등 여전히 스크립트 중심으로 정형화 된 뉴스 콘텐츠를 더 재미있고 쉽게 수용되는 뉴스로 발전시키겠습니다. IT의 발달과 뉴스 스킬(skill)의 고도화로 표현의 수단은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스크립트와 카드뉴스, 그래픽, 동영상, 음원, 인터랙티브 기법들, 웹툰, 구독자를 위한 누리집 오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기사의 형식적 완성도는 내용의 약점까지 메울 수 있습니다.

- 편집회의를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 ‘편집회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역대 공약은 기자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갖게 했지만 CBS편집회의의 현재적 모습은 별로 바뀐게 없습니다. 회의는 생산될 뉴스의 ‘예표’인 까닭에 우리 뉴스가 바뀌려면 반드시 회의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의의 논의들이 단순한 보고아이템의 나열이 아니라 이슈 취재의 출발점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하루, 일 주일, 한 달에 걸쳐 생산될 뉴스의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이슈 파이팅에서 한발 앞서고 뉴스 흐름을 선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편향된 기사를 없애겠습니다. : 뉴스생산에서 제 1의 가치는 뉴스의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의와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주제라도 기사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향된 기사는 경쟁력을 갉아 먹습니다. 외부간섭으로부터 뉴스의 논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CBS뉴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영향력에서 중앙언론사 ‘톱10’, ‘톱5’에 진입하도록 그 초석을 놓겠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뉴스 구독자 300만)	(인력운용 및 소통)
1 온라인 콘텐츠 생산에 보도국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가공·유통을 지휘할 ‘콘텐츠C P’를 신설하겠습니다. 3 노컷V에 탄탄한 시나리오를 입히고 CBS특종은 유튜브로 제작하겠습니다. 4 부동산·탄소중립·출산돌봄·북한이슈는 팀단위 취재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5 탐사보도팀을 구성해 긴 호흡의(3~6개월) 기획물을 생산하겠습니다. 6 이슈대응 TF를 유연하게 적기 구성해 대응력을 높일 것입니다. 7 이슈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타사기사는 과감히 킬하겠습니다. 8 아침뉴스는 제작팀에 아웃소싱하되 1~2개의 ‘주제가 있는 뉴스’로 바꾸겠습니다. 9 저녁뉴스는 현행틀을 유지하고 OTT 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10 우수 지역기사 노출과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협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 포털의 ‘CBS디스카운트’를 바로잡겠습니다. 2 합당한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일전을 불사하겠습니다. 3 보도국 - 네이버·다음간 소통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4 PC, 모바일 트래픽이 동시 카운팅 되도록 기술적 솔루션을 찾겠습니다. 5 예산이 들더라도 트래픽 확장이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1 출입처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2 인사에 앞서 1, 2지망을 받고 출입기간을 감안하겠습니다. 3 기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4 장단기 해외연수를 보장·확대하고 분기별 미디어교육(강연)을 마련하겠습니다. 5 정기적으로 보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팀/기수단위 모임을 장려하겠습니다.

제작국장 후보자 1

김세광

現 제작국 제작2부 프로듀서

-공연기획센터장, 제작국 제작2부장, JOY4U부장,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아름다운 당신에게>, <행복한 동행>, <시사자키>, <행복의 나라로> 등 제작
 -한국방송대상, 한국PD대상 수상, 레인보우 기획 론칭, JOY4U 채널 기획 론칭



집을 지을 때는 건축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는 집주인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계도가 완성되고 좋은 집을 짓는 기초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계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시켜 일하고 싶은 곳,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제작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장이 아닌 콘텐츠 가든 : 가드너와 가디언

청취자들의 사랑받는 좋은 콘텐츠의 시작은 좋은 제작 환경입니다. 코로나 팬더믹 여파도 있지만 CBS가 사람의 온기를 잃은 공장같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최고의 복지는 좋은 리더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장은 기계화된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좋은 땅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뿌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콘텐츠 정원을 책임지는 가드너의 역할입니다. 또한 정원에 핀 꽃을 누군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감시하는 편성권의 가디언이 되어야 하죠. 섬기고 경청하며 시니어와 주니어간 가교 역할을 맡아 공동체성 회복하고 조금은 어두워진 제작국의 분위기를 밝게 바꿔 소통하고 서로를 챙겨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개편: 리셋

그동안 큰 변화 없이 틀을 유지해왔던 음악FM과 표준FM 편성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안정적인 청취율보다는 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고 뛰어가는 스트라이커처럼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편성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CBS 라디오의 리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유연한 개편 논의를 위해 개편 연구반 모임을 정례화 하고 아이디어 논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4.0 : Beyond Radio

레인보우를 개발하면서 전통적인 라디오 플랫폼을 벗어나는 라디오 2.0시대를 열었고 JOY4U를 런칭하면서 라디오 3.0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미디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창작 콘텐츠 인큐베이팅을 꾸준히 하고 제작한 콘텐츠들을 라디오 편성 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하는 오디오 콘텐츠 전문 창작스튜디오 개념의 라디오 4.0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인력 총원과 배치 : 근무 패러다임의 변혁

특정 프로그램 제작진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한 나비효과는 인력배당의 불평등 문제와 열정의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니어, 주니어 간의 불편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디, 아나운서 모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는 요즘 노동에 합당한 인센티브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인력 순환을 통해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것들의 시작은 지속한 가능한 제작인력의 총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것처럼 제작 인력이 총원되지 않는다면 제작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나운서, 피디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겹친 주52시간 시대는 제작국의 근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인프라 조기도 입으로 꼭 사무실에 뿐 아니라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겠습니다.

제작국 뿐 아니라 CBS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작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CBS의 콘텐츠는 CBS 공동체 모두의 수레바퀴 위에서 제작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국장 후보자 2

이재상

現 제작국 편성부장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N클리닉>, <그대와 여는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 <뉴스쇼>, <CCM 캠프>, <오후의 향기> 등 제작
 -<21세기 평화로 가는 길> <월드뮤직 현장을 가다>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방송대상, 한국PD대상, 올해의 프로듀서상 등 수상



무거운 마음으로 제작국장 후보로 나섭니다.

CBS 라디오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죠. 이 엄중한 시기에 국장으로서 난관을 헤치고 나가기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이 헤쳐가야 할 어려움이라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뒤에서 박수치고 응원만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같이 해보자고 손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어색합니다. 제가 원래 소심하고 목소리도 작습니다. 우렁차게 소리치고 싶지만 제 얘기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 모아 같이 외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작국 선후배 동료들과 CBS의 구성원들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감히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비록 작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는 더 세심하게 들겠습니다.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들을 한 데 모아 CBS라디오와 제작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외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시오.

저는 국장이 되면 이런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1. 라디오를 넘어 플랫폼으로 : 지난 몇 년간 우리의 화두는 ‘디지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각한 것은 라디오와 플랫폼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플랫폼만 다를 뿐 핵심은 여전히 콘텐츠경쟁력입니다. 콘텐츠 제작역량을 키워 라디오의 청취율을 끌어올리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공략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해 제작 인력의 배당 시스템도 디지털 역량 확장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편성부의 업무를 편성기획과 뉴미디어제작(디지털콘텐츠제작팀)으로 분리하겠습니다. 편성의 변화는 급격하게 추진하진 않을 겁니다. 현재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꾸준히 열어 갈 겁니다. 디지털콘텐츠제작팀은 뉴미디어기획제작을 가릿일이 아닌 핵심 업무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3. 뉴스쇼는 지속가능한 제작시스템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제작진들 앞에 놓인 선택지가 뉴스쇼와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기서 얻은 창의력과 자신감이 우리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소통 강화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소통이야말로 위에서 얘기한 모든 것의 기반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은 내 말과 마음이 가 닿았다는 확신과 그래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계속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작국장 후보자 3

조충남

現 제작국 제작1부 프로듀서

-편성부장, 현 <굿모닝뉴스 이명희입니다> 프로듀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미화의 여러분> <오후의 향기> 등 제작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PD연합회 PD상, 민언련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비평회 상 수상



작지만 강한 방송, 정직하고 따뜻한 방송, <기독교 방송> CBS의 자랑스런 이름입니다. 26년전 입사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배 동료들과 더불어 땀과 눈물, 진실된 헌신으로 지켜온 CBS를 위해, 어려운 해답 찾는 길에 동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시대에 기록된 CBS의 과거를 성찰하고 우리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냉정히 평가하며 내일의 혁신을 향한 구성원들의 공감을 무기로, 향후 10년의 미래를 그려 봅니다.

첫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조직 혁신, 생각의 전환입니다.

- 전통적인 오디오 매체를 넘어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 조직으로 변화입니다
- 영향력있는 콘텐츠 생산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위한 매체 융합 시도입니다.
-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과 오디오를 기본으로 하고 원소스 멀티유스가 가능하도록, 유통과 마케팅까지 염두에 둔 제작 시스템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새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수시 개편을 통해 변화에 대응 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숲>처럼 조화로운 제작 생태계를 만들어 청취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표준FM을 시사와 교양 정보, 선교와 음악이 조화롭고 내실 있게 방송되는 매체가 되도록 하여 청취율 상승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음악FM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블록화, 세대별 맞춤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 시사와 음악으로 한정된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를 주어 PD의 제작 생태계를 다양하게 하고, 아나운서들의 진행 역량도 다면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보도국, TV제작국, 디지털 콘텐츠국, 지역국 등과 협업을 늘려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겠습니다
- 인사 예고제와 경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특정 PD와 아나운서가 업무로 소진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업무를 배분해 재충전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겠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이성들의 아름다운 CBS공동체를 꿈꾸겠습니다.

- 코로나 시대를 통해 절감한 구성원들의 고립감과 상생의 요구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소통 통로를 만들고, 시니어와 주니어가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늘려가겠습니다.
-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각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성과 보상과 마음 나누기에 힘쓰겠습니다.

정론직필의 당당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편성 독립의 관점을 명확히 견지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 될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